

# “1980년 광주에 두고 온 봄,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컬처 & 피플

극작가 · 소설가 정경진



숨겨진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 온 극작가 겸 소설가인 정경진(50)씨가 최근 장편소설 ‘푸르른 날에’(도서출판 그라제)를 출간했다.

당초 이 작품은 소설보다 연극으로 사랑을 받았다. 시나리오를 희곡으로 각색한 것이 지난 2009년 제3회 차범석 희곡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1년 연극무대에 올려져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휩쓸었고, 5월이 되면 꼭 봐야 할 연극으로 매진신화를 쓰는 등 화제를 뿌렸다.

소설로 첫 선을 보인 이후 무려 12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집필한 ‘푸르른 날에’는 5월 광주가 주 무대다. 그동안 연극 무대에서 못 다한 이야기, 좀 더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

그녀는 “5월의 대표아이콘으로 해마다 남산을 들쭉이게 한 명품 연극이지만, 연출의 손을 거치면서 희화화된 캐릭터들의 진면목과 5월의 서사를 제대로 알고 싶었다”며 역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1980년이 화두인 ‘푸르른 날에’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차마 사랑을 놓지 못해 돌아서야 했던 여인과 그녀를 사랑하기에 가까이 운명을 놓아버린 남자의 이야기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까지 깨닫는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망월동은 버릴 수도 잊을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세상으로 다가온다. 그 봄날의 쓰린 아픔과 기억들이 펜 끝에서 해학과 웅서로, 영원한 기억으로 승화되어 가슴이 뭉클해지는 소설이다.

특히 작품 저변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도(求道)와 다도(茶道)가 마치 시침과 분침의 틈나비처럼 맞물려 돌아가 광주, 그 날의 아픔이 인절미처럼 질겨진다.

그녀는 “차(茶)와 선(禪)이 돌아 아니고 시와 그림이 돌아 아니며, 시(詩)와 선(禪)이

## 명품 연극 ‘푸르른 날에’ 못다한 이야기 담아 장편소설로 다시 출간



돌이 아닌 것처럼 너와 내가 돌이 아니라 다선일여의 진리를 깨닫기엔 한참 멀었지만, 이 작품을 쓰기 위해 불교대학을 다니며 다도를 공부했던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창작에 전념하겠다”는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구도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 명쾌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도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남겨진 자인 우향은 자기연민을 다도를 통해 다스리며 인고의 여인상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세해야만 지탱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수행입니다. 이런 번민들이 이들 두 사람을 이어주는 심리적인 연결고리가 되며 딸의 결혼이라는 명제를 풀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정말 너무 아프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가. 그녀는 “극중 인물들을 통해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외면했다”며 “이 아픔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 불치병이 되어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아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픔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흔적이었고, 드러내놓

고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어 함부로 울지도 못했던 여인에게 세월은 기억이 아닌 기록이었다.

“유명하기 보다는 유능한 스토리텔러이고 싶다”는 그녀는 “현재 ‘푸르른 날에’는 영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개봉 예정으로 중국에서 영화제작에 들어간 로맨틱 코미디물 ‘천생연분’의 원작인 ‘군자, 몽유도 원도를 그리다’와 호러물 ‘심안 37’도 현지서 소설로 발간해 스토리 원조국의 지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본 진출을 목표로 번역에 들어간 ‘클럽 해본’과 디지털 작가상을 수상한 ‘숨은 그림 찾기’를 비롯해 전남을 배경으로 영화화 될 ‘선물’의 원작인 한국 안데르센상 수상작 ‘까만 콩과 물 찬 제비’가 차례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향목표를 기반으로 한 문화 창작 집단 ‘그라제’에 몸담고 있는 정 작가는 늦깎이 등단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의 경험을 통한 완성한 집필로 이미 극본, 소설, 대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솜씨를 과시해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정평이 났다. 현재 KBS 목포방송국 구성작가 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그라제’는 예향 지기를 자처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문화 창작 집단으로, 무한공정을 의미하는 순수한 전라도 사투리이며 이태리어로는 ‘고맙습니다’라는 뜻이다.

“이미 연극으로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12년의 장고 끝에 타고난 소설 속에는 무대에서 못 다한 이야기, 좀 더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다”며 “오월 영령과 유가족, 또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바친다”고. 어쩌면 작가의 말처럼 ‘1980년 광주에 두고 온 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무심한 봄이 또 다시 오고 있다.

글·사진=목포 고교서 기자 yousou@



박진현의 문화카데

미국 뉴욕 맨하튼의 5번가를 걷다 보면 마치 ‘미술관 천국’에 들어선 것 같다. 루이비통, 티파니, 샤넬 등 명품매장들이 즐비한 쇼핑 1번지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크고 작은 미술관과 문화공간들이 ‘한집 건너’ 자리를 잡고 있어서다. 맨하튼 5번가를 예술의 거리로 ‘신분상승’시킨 건 ‘뮤지엄 마일’(Museum Mile)이다. 세계 4대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필두로 구겐하임미술관~뉴욕시립미술관~남미 미술관~쿠퍼 휴이트 디자인박물관~노이에 갤러리 등 내로라하는 9개 미술관이 늘어서 있는 1.9km 구간이다. 불거리들이 지

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처럼.

뮤지엄 마일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뉴욕의 풍성한 예술자산을 보여 주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인 뉴욕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가 됐다. 매년 미 전역과 각국에서 일부러 축제기간에 맞춰 뉴욕행 티켓을 끊는 열혈 관광객이 20여 만 명이 나온다.

요즘처럼 뉴욕의 뮤지엄 마일이 부러운 적이 없다. 지난해 12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전당)의 주요 시설이 완공됐지만 인근의 금남로는 뚜렷한 ‘컬러’를 지니지 못한 채 단순 차도와 인도의 기능에 머물고

## 문화전당 옆 금남로

전으로 날려 있는 맨하튼이지만 문화도시 뉴욕의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매력 덕분에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미술관 주변에는 ‘자생적으로’ 갤러리와 문화공간들이 동지를 틀면서 거대한 문화특구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78년 첫선을 보인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은 ‘5번가의 기적’을 이끈 주역이다.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에 펼쳐지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은 미술관 무료 투어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뉴욕이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미술관 밖에서 펼쳐지는 ‘난장(亂場)’이다. 남미 미술관이 경쾌한 라틴음악과 댄스가 어우러지는 야외공연을 선보이면 이에 질세라 뉴욕시립미술관은 록밴드 콘서트로 맞불을 놓는다. 더불어 뉴욕의 젊은 아티스트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림을 그리며 잊

기 때문이다. 5·18 항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예향 광주의 심장에 걸맞은 문화콘텐츠 역시 빈약하다. 게다가 금남로 곳곳에 자리한 조각작품은 대부분 금남로의 역사와 장소성과는 거리가 멀다. 금남로가 제대로 ‘터주지’ 못하면 자칫 문화전당이 거대한 섬으로 고립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최근 다행스럽게도 30여 년 만에 5·18 항쟁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시계탑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당개관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 금남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의 귀환은 문화광주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전당발(發) 문화의 물결이 금남로의 ‘역사’와 만나 도심 전체로 흘러간다면 경쟁력 있는 ‘문화 1번지’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뮤지엄 마일 못지 않는 ‘컬처 로드’(culture road)의 기적을 준비하자.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문화예술 명사 재능나눔 프로그램 을 80회 운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 명사들이 참여하는 재능나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분야 명사들의 재능나눔 사업인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을 연간 80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2009년 시작한 재능나눔 사업엔 이

어려진 문화부 장관 등 125명의 명예교사가 동참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령 명예교사의 ‘동행 콘서트’, 시인 양희경, 서예가 강병인 명예교사가 함께 진행한 ‘섬진강 한글 놀이터’ 등이 호응을 얻었다.

올해 프로그램은 ‘2015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블로그(<http://arteday.tistory.com/>) 등을 통해 공개한다. /연합뉴스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